유성구 행복누리재단, 한국전력연구원서 연탄 1만장 기탁받아

취약가정 20곳에 후원물품도 전달예정

대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(이사장 김홍혜)은 15일 한국전력연구원(원장 김동섭)으로부터 동절기 난방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1만장과 1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(라면)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. <사진>

기탁된 연탄은 가정 20곳에 500장씩 지원하고, 후원물품은 장애인그룹홈 3곳과 아동그룹홈 5곳에 배분돼 사랑의 온정을 높이게 된다.

한편, 한국전력연구원은 사랑의 김장나눔 및 무료급식 봉사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. 박태구 기자 hebalaky@

기사입력 : 2016-12-15 16:56
<박태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>

국제공인경영컨설턴트(CMC)
글로벌비즈의 전문파트너
IMC Korea

GUKJENEWS News Agency

세종사이버대학교
세종사이버대학교 2017학년도 전기 신 · 편입생 모집
모집일정 2016. 12. 1 (목) ~ 2017. 1. 6 (금)

▲ (사진제공=유성구)한국전력연구원 차세대송변전연구소장 윤용범(왼쪽에서 다섯번째)과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상임이사 송인준(왼쪽에서 여섯 번째)이 배분기관 대표들과 함께 기탁식을 진행하고 있다.

(대전=국제뉴스) 송윤영 기자 = 대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은 15일 한국전력연구원으로부터 동절기 난방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10,000장과 1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(라면)을 기탁받았다.

기탁된 연탄은 20가정에 500장씩 지원하고, 후원물품은 장애인그룹홈3개소와 아동그룹홈 5개소에 배분되어 사랑의 온정을 높이게 된다.

한국전력연구원은 사랑의 김장나눔 및 무료급식 봉사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.